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 아름다운 사람 에스더 (에 5:1-8)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 1. 사명을 발견한 사람

에스더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르드개는 조국의 위급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조국을 구할 것을 결심합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고생만 하다가 왕후라는 자리까지 이른 에스더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는 사명을 위해 일하다 죽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임을 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 2. 자신의 강점으로 사명을 감당한 에스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수려한 외모를 주셨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강철 같은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언변의 은사를 각각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는 그녀의 내면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덕성과 인품을 본 헤개는 그녀를 좋게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도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인 헤개가 정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왕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A Beautiful Woman, Esther (Esth. 5:1-8)

The person who lives one's life according to God's calling is a beautiful one. In that sense, Esther was a beautiful woman.

### 1. The person who finds one's calling

Esther became a queen of the Great Persian Empire. What would happen to her, if she had nothing to fear? Nevertheless, she heard the news of the Jewish people suffering badly.

Mordecai reported the critical situation of his country to Esther, and Esther determined to save her homeland in keeping, "if I perish, I perish." in mind.

Esther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and as an orphan, she endured hardship. After she became a queen, she was really faced with a difficult problem. At that time, she did not seek what she could enjoy but she thought what the real calling from God was. It was a beautiful Esther who knew, "it is more beautiful and valuable life of which someone works for calling from God and dies."

### 2. Esther who could bear her mission

God gave Esther a graceful appearance which was her strength. God gave the message of knowledge to one through the spirit, to another the message of wisdom, to another the spiritual gift of strong health like steel, to another the spiritual gift of creating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o another the spiritual gift of eloquent speaker.

Since God clearly gave us what we are able, we must fulfill our mission with the spiritual gift that was given by God. If so, we, ourselves feel happy, and we live happily, while God receives glory through the fruit that we b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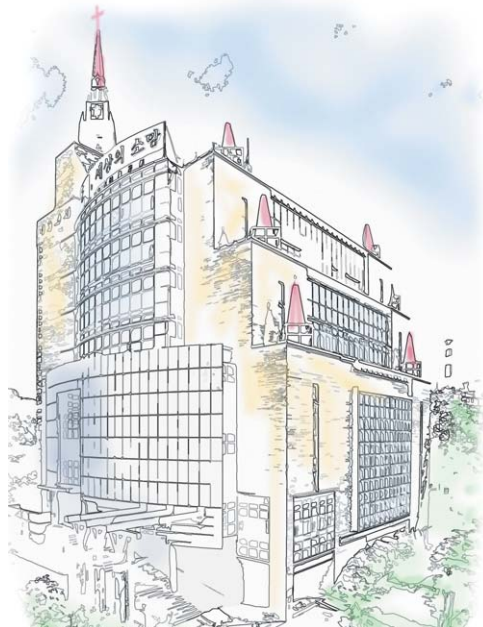
However, her internal beauty was apparent. Hegai who saw not only her beautiful appearance but also her graceful and virtuous personality immediately liked her.

When she went to the King, Esther asked for nothing other than what Hegai, the King's eunuch who was in charge of the Harem, suggested. And she was very much pleased with the King.

### My beloved Christians,

It is real happiness that we find our mission by ourselves and it is our life that we should do our best for our mission.

By finding the calling that was given us by God, and achieving his mission through our strength by trying to do our best, I earnestly hope that all of us will lead our happy and joyful life for God's glory.



# 제4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내일 개강

## 주제 : 교회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목회자의 자기갱신과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내일 제43학기를 시작한다. 오는 5월 6일(월)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교회 성장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주제로 열린다. 제1교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허주교수가 지난해 봄 제41학기에 이어 사도행전 강해(2

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 학기 주제인 '교회 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최근 대부분의 교회가 교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부 커리큘럼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주	일/일	강사	교회
1	3월 4일	류영모 목사	한소망교회
2	3월 11일	이장석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성장연구소
3	3월 18일	최상태 목사	화평교회
4	3월 25일	반태호 목사	은누리교회
5	4월 1일	김재용 목사	세린교회
6	4월 8일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7	4월 15일	김대동 목사	구미교회
8	4월 22일	윤정중 목사	광주새순교회
9	4월 29일	정경수 목사	무학교회
10	5월 6일	박춘광 목사	지구촌교회

### 21년 전통의 목회자신학세미나

#### 이계홍 장로 (교회갱신연구원 원장)

봄, 가을마다 400여 명이 넘는 전국 목회자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며, 교제를 통해 영적 재충전을 하기 위해 모여든 지도 어느덧 20년을 넘어 벌써 43번째 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려면 먼저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원로 목사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단의 갱신, 자기 갱신을 위해 주일 온종일 사역을 끝내고 피곤한 몸에도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웨스트민스터



서울 논현동 강남 YMCA 강당을 빌려 진행한 초창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홀을 가득 채우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섬김위원들도 이 분들이 이곳에서 보다 알찬 정보와 반가운 교제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 곳곳을 살피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오시는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나눔의 집은 늘 인기매장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기증한 각종 물품이 이 분들에게 요긴한 것들이 되는 만큼, 가정에서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등이 있으시면 꼭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2013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3월4일(월)~5월12일(주) 10주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4일(월) 오전10시, 시편반(지도 : 한상은 목사)을 시작으로 5월12일(주)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시편반	월 오전 10:00-11:00	한상은 목사	602호
사무엘상 1반	금 오전 6:00-7:00	오세광 목사	602호
구약의 파노라마반	토 오후 8:00-9: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30-12: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렘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주일 오후 2:00-오후 3:50	배경애 전도사	701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4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급반(18주간)	주일 오후 12:40-13:40	임규현 목사	609호
중급반(18주간)	주일 오후 12:40-13:40	임규현 목사	603호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8]

(문 78) 삼손이 불신자와 결혼한 것은 모세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사사기 14:4에 의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했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 사 14:3에 의하면 삼손이 دنیا에서 데려온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것을 자기 부모에게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그의 부모는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항케 하시려고 공격적인 장수로서 삼손을 사용하시려 하셨던 것을 그의 부모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이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이 모세율법을 깨뜨린 즉 이방인과 잡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결론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운 교제를 했고 그가 이방사람을 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영웅으로는 생각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깊은 애정을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이 완전하지는 못했으나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기고 다시 찾기를 원했으나 장인의 거절로 인해 블레셋 사람을 칠 또 하나의 명분을 얻게 되어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여 꼬리와 꼬리를 매고 그 꼬리사이에 화를 매어 달고 화에 불을 붙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몰아넣어 모두 불사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을 묶어 끌고 갈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그를 묶은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고 삼손은 나귀의 턱줄을 들고 일 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진멸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김다니엘 목사 부임 영어예배부 지도



1957 서울 출생 (9월19일)  
풀러 신학교 졸업, 신학 (M.Div.)  
, 선교학 (Th.M.), 선교학 (Ph.D.)  
현재, 아시아연합신학대학  
(ACTS) 영성신학/선교신학 교수,  
선교영어학과 학과장



3.1절 특별 순례자 특별기고

# 3.1독립운동의 중심에 선 기독교

올해 우리는 기미독립 선언 94년째를 맞이한다. 당시 1919년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요 외래종교였으나 일제에 빼앗긴 민족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다.

당시 일제에 항거하여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을 청원한 한국의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昇遐)로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40만~50만명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 들었다. 파리 강화회의를 계기로 1919년 2월에 동경 유학생이 먼저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최남선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초안으로 작성되고 태화관에 모여서 김선주 목사를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 이에 서명하고 탑골 공원에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들은 자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연행되었다. 강기덕 등 청년학생들은 저동공원 삼각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시가 데모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일시에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거사(擧事)를 준비하는 장소는 교회당이었다.

당시 천도교당은 지방에 약간 있었으나 너무 소수여서 민중집회는 불가능했고, 불교사원은 산간 벽지에 있어서 민중들과는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교회당은 크나 작으나 동네마다 있었고, 조직적이고 민중들이 쉽게 드나드는 장소였다.

교회는 신앙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조선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당을 통해서 독립



김영한 목사 (협동목사/ 숭실대 명예교수)

**초창기 한국기독교는 소수였으나 전국민의 염원인 조선 독립의 선봉에 섰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만세운동 소식이 전달되었다. 이미 교회당은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연락처와 집회처의 역할을 하였다. 목사들은 국권 회복을 위하여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인들은 따랐다. 그리하여 대한독립만세가 함성처럼 전국에 퍼져나간 것이다. 일본 경찰은 허를 찔린 셈이었다. 일본 경찰은 이 평화로운 시위를 총칼을 가지고 진압하고 학살을 감행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제암리교회의 학살이었다. 수원의 제암리 감리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기도와 예배를 위하여 모였다. 일경은 교회당을 완전 포위하고 석유를 붓고 방화를 하여 어린이를 비롯하여 모든 교인들을 학살하였다. 당시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큰 박해를 받았다. 이처럼 초창기 한국기독교는 소수였으나 전국민의 염원인 조선 독립의 선봉에 섰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외래종교인 기독교는 한국 민족의 중심에 들어선 종교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제도종교가 된 기독교는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격과 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초창기 기독교의 금자탑에 누를 끼치고 있다. 3.1절을 맞이 하여 우리는 스스로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 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민족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순절 기도

##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 노문환 장로(당회서기)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는 감히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없나이다.

우리의 알량한 의를 내세워  
형제의 티끌만한 잘못은 잘못 들춰내면서  
들보 같은 우리의 죄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형제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정(正)과 사(邪)를 혼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금흠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관능의 손으로  
우리의 손목 불드시어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구원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작은이들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겨울수련회 후기

## Who am I ?



임흥수 집사 (영어예배부 부장)

영어예배부는 지난 2월 23일 교회에서 금년 초에 영어예배부 담당 교역자로 새로이 부임하신 김 다니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겨울 수련회를 겸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정체성과 삶의 목표(Identity and Destiny)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고민 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가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해답을 찾아 보았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점심 시간도 즐겨가며 강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 모두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도 했습니다.

영어예배부는 금년 말 150명의 예배자를 목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각 대학에 유학중인 원어민의 전도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대 명령이신 땅 끝까지 전도를 위한 사역자 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세종아!  
아빠, 엄마가 결혼한 후 5년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하고 소중한 선물, 우리 세종이 어느덧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구나. 할머니, 목사님, 다락방 집사님들의 축복 가득한 기도 안에서 태어났던 우리 세종이. 아기 때는 유난히 예민하여서 많이 울었고, 유치원 다니면서부터는 반복되는 고열과 중이염으로 여러 병원들을 전전공공하며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빠, 엄마는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종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종윤 목사님께서 이름과 함께 적어주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사58:1)' 는 성경 말씀과 "잠든 세(世)상에 복음의 종(鐘)소리를 울리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문이 생각나는구나. 아빠, 엄마는 우리 세종이가

이사가 말씀과 목사님의 기도문처럼 언제 어디서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드립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세종이에게 많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 생기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멋진 모습 기대해볼게. 사랑해.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정수진, 구본혜, 이지동, 김선자  
아브라함선교회      누계: 155팀 13,000,000 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임광우(최미희) 성백우 윤미란 박범준 안치영 이상균 김문수 이종창(정명옥) 유관모 장항자 금병화 한상준(임명숙) 이인표(최유진) 우선영 김해영(엄성웅) 아브라함선교회 김한성 전은주 전은재 정승자 정민식(유영순) 성선규(김명심) 유남근(정은영) 정길영 정수진 조민성 이정은 김재혁 박순자 김제민 권승욱 최원석(박길희) 이미선 김태오 아브라함선교회      누계: 250명 17,870,000원

**비전2020 운동 후원자**

아브라함선교회      누계: 개인 312명, 단체 14개 988구좌 4,940,000원

**2013년 순결서약식**

- 신청 및 교육은 부서별로 -

**순결서약식-3월 31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2013년 순결서약식이 3월 31일(부활절)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3월 2째 주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4일(월) 서울장신대 새학기 첫강의를 시작한다. 3월6일(수) 평택대 채플설교를 한다. 3월7일(목)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한다. 3월9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기도회를 소집한다.
- 승진: 2교구 최형렬집사 성남 수정초등학교 교장
- 득남: 이현수 집사 조희 집사(12교구)
- 박사학위 취득: 강정일 성도(9교구) 보건학박사(차의과학대학교) : 노은아 집사(12교구) 음악학박사(서울대학교)
- 공연: 3교구 이승현 성도(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발레리노) 백조의 호수 3월 9일(토) 오후7시 30분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3.3) 도르가전도회(3.10)
- 금주의 식사: 최홍열 집사 오홍래 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2013년 2월 학습·세례식 거행**

지난 2월 17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3년 첫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짝수달(격월) 3째 주 주일 1,2,3부 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강예선, 기태연, 김주연3, 문소현, 전영주1, 한정윤, 계 6명  
**<입교자>**

김범수1, 김승현8, 김달영, 박민선, 배진희1, 송인혁, 신찬혁, 이우주, 진주호, 최현제, 한정우, 한진우 계 12명  
**<개종자>** 하희선 계 1명  
**<학습자>** 공서연, 김삼민1, 김세찬, 김원욱, 김정봉, 김지윤6, 류한희, 박승수, 박은영2, 석동희, 신주현2, 위대영, 유재형1, 이광일, 이연희2, 이지순, 이창재, 전유연, 최상혁, 계 19명  
**<유아세례자>** 김선호2 배유미, 하운제 계 3명  
총 41명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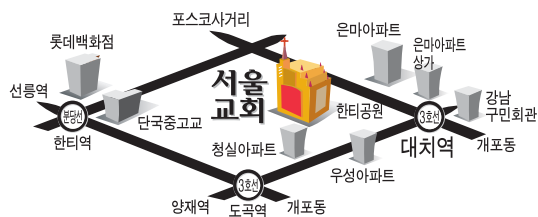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삼일절을 맞아 서울교회가 더욱 애국하는 교회가 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2. 제4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열린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교회의 섬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 겨울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각 부서별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부서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부 오전 11시 20분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부 오후 2시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젊은이예배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